

첫째 주; 죄사함의 확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
(눅 5:31-32)

Luke 5:31-32 (NKJV)

³¹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오늘부터 제자 확립을 위한 기본 신학 첫째 주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제자확립을 위한 기본 신학 시리즈는 지난 20 년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공부입니다. 이번 이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리리라 믿습니다.

먼저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난 20 년간 제가 가르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치 수많은 잎과 수많은 가지를 가진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잎사귀부터 만져가면 전체를 다 만질 수도 없고, 이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먼저 뿌리를 만지고, 그 다음에 줄기를 만지고, 그 다음에 가지를 만지고, 그다음에 잎사귀를 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겠다고 작심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금방 지루해져서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일평생 이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평생 성경을 옆에 끼고 다녀도 말씀이 주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 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뿌리, 줄기, 가지는 무엇입니까?

신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나 하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다음이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실생활에 adapt 하는 적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부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구원론은 대략 죄사함, 중생, 칭의, 성화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사람은 죄사함, 중생, 칭의, 성화에 대해 이해를 해야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감이 잡힙니다.

이것이 뿌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기본 신학 강좌입니다.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 사도 신경입니다. 사도 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재림 등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도 신경 강해입니다.

이것이 두번째 줄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신앙을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적용을 하기 위해선 성경이 제시하는 life style 이 무엇인지 근원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인의 life style 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신자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아주 wonderful 한 Life style 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이며 행복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가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과 안정이 없이 up & down 입니다.

이 기본 신학, 사도 신경 강해, 주기도문 강해를 다 공부하는데 약 1 년반 정도가 걸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하는 사람은 먼저 Dedication 이 있어야 합니다. Dedication 이 없이 성경을 공부하면 얼마 못가서 그만 두게 됩니다. 일평생 성경 공부를 한다고 성경을 옆에끼고 여기 저기 기웃거리 봐야 일평생이 지나도 거기서 거기일 뿐 여전히 성장이 없이 헤매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후에 성경을 읽어야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 오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깊고 깊은 은혜의 진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양에 따라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공부를 시작하는 분은 누구든지 이것을 공부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신앙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

(눅 5:31-32)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에 나가십니까?” 하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하며 무슨 질문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인데, 자신이 죄용서를 받았는지 안았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눅 5:31-32)” 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병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십년을 교회에 다녀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딤후 1:15).

디모데전서 1 :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 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막 태어나는 어린아이부터 무덤 속에 들어가고 있는 노인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이 세상에 역사상 존재한, 또 존재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태어난 어린 아이가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 세상엔 두가지 종류의 관점밖엔 없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서 사람을 보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담 안에서 보시면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인간을 보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 원죄의 발생

< 창 2;5-24 까지 읽도록 한다. 절이 길므로 나누어서 읽는 것이 좋다>

창세기 2 : 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Genesis 2:7-8 (NKJV)

⁷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being.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직접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흙으로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창 2:19), 인간은 하나님이 말로 명령하시질 않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산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물질로 된 몸과 하나님께로 온 비물질인 영혼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머리 속에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 :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⁸The Lord God planted a garden eastward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whom He had formed.

창세기 2 :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Genesis 2:9 (NKJV)

⁹And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made every tree grow that is pleasant to the sight and good for food. The tree of life was also in the midst of the garden,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니 그 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가 많이 있었읍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었읍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도 있었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 하시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Genesis 2:16-17 (NKJV)

¹⁶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saying, "Of every tree of the garden you may freely eat;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¹⁷b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 하신 이 것이 최초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을 동산 안에 만들어 놓으셨나? 이것이 없었으면 좋을 것을 --!”

원죄에 대해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미국의 보수 신학계의 이론, 세가지를 간단하게 공부해보십시오.

첫번째는 covenant theology 다른 말로는 federal theology, 우리 말로는 언약론, 계약신학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Neo-Calvinist 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보수 장로교가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행위 언약적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New covenant Theology, 이것은 미국의 최대 교단인 침례교가 지지합니다. 여기서는 행위 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이론인 Dispensational theology, 세대 주의적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양심이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가지 주장이 있지만 각기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뿌리째 뺏으려고 하는 자유주의는 배척해야 하지만, 신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남의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충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로마서 강해 5:12 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적인 차이를 알고 싶은 분은 세개의 학파편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강해 5:12 <http://www.spbcs.org/TextRomans/RomEX0512Exgesis.pdf>

로마서강해 5:12 <http://www.spbcs.org/TextRomans/RomEX0512Exgesissupmnt.pdf>

로마서강해 5:12 <http://www.spbcs.org/TextRomans/RomEX0512Exgesissupmnt2.pdf>

세개의 학파편 <http://www.spbcs.org/TextFCF/ComparisionOf3System.pdf>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 : 12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Acts 4:12 (NKJV)

12 No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형이든지 원형이든지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 한 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계속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피조 세계를 율법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sign)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 죽음으로 결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3 : 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Genesis 3:1-5 (NKJV)

¹ Now the serpent was more cunning than any beast of the field which the Lord God had made. And he said to the woman, "Has God indeed said, 'You shall not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창세기 3 :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² And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We may eat the fruit of the trees of the garden;

창세기 3 :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³ but of the fruit of the tree which is in the midst of the garden, God has said, 'You shall not eat it, nor shall you touch it, lest you die.' "

창세기 3 :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⁴ Then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You will not surely die.

창세기 3 :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⁵ For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유혹하니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3 :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 :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뱀의 말을 더 거부해야 하는데, 뱀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최초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원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인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자,

창세기 3 :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Genesis 3:6-7 (NKJV)

⁶ So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that it was pleasant to the eyes, and a tree desirable to make *one* wise, she took of its fruit and ate. She also gave 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ate.

창세기 3 :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⁷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and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coverings.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최초의 죄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